

국회AI도서관 (NAIL):

공유와 신뢰를 넘어
디지털 포용으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의 내일과 직결된 국회AI도서관

바야흐로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이다. 다수의 특화 에이전트를 지휘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Agentic) AI'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지식 경쟁력을 높이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비전의 중심에는 국회도서관의 'NAIL 프로젝트'가 있다. NAIL은 국회AI도서관(National Assembly AI Library)을 말한다. 국회도서관의 내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장 똑똑하고 자율적인 도서관 특화 에이전트를 우리 생활에 밀착시키는 것이 NAIL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도서관에 대한 '신뢰'라는 성공 방정식을 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의 시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왜 지금 그러한 새로운 지능형 통합 플랫폼이 필요할까? 국회도서관도 '모두를 위한 AI',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2024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AI 기반 대화형 정보검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압도적이다(97%). 이제 도서관도 단순한 키워드 검색에서 더 나아가, AI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해답을 추구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는 방대한 도서관 자료 속에서 정보를 찾는 검색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가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핵심 정보와 해답을 요약·정리·제시해 주는 지능형 서비스가 핵심이 되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 되어야 할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국회도서관은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2026년 2월 말 현재 비정형 데이터인 원문 PDF는 8,335,743건, 443,787,203면에 달한다. 정형 데이터도, 용어관계사전DB 134,594건, 외국법 번역 데이터셋 330,533건,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 8,042,901건, 국회·지방의회 회의록 데이터셋 49,587건, 지방의회 회의록 5분 자유발언 분석정보 데이터셋 7,185건, 표·그림 등 기초데이터 796,764건, MARC 메타데이터 13,782,908건이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는 그야말로 국가 지식의 보고이다.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축적의 대상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 되어야 한다.

국회도서관은 이미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에는 국회전자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입법자료포털, AI시사분석 아르고스(ARGOS),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언 빅데이터, 지방의정보털 및 업무통합관리 시스템 등의 시스템이 있다. 국회전자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입법자료·정책자료·학술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대표 정보서비스이다. 국가전략포털은 국내외 정부·공공기관·싱크탱크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포털이다. 입법자료포털은 국내외 의회 정보·법률정보와 국회도서관 발간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포털이다. AI시사분석 아르고스는 뉴스, 소셜 데이터와

국회 내·외부 자료를 융합 분석하여 의정 현안과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는 각종 국회 세미나, 공청회 자료 및 정책자료집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발언 빅데이터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록을 데이터셋으로 제공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의정보털에서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는 국회 내부는 물론 일반 이용자를 위하여, 'AI 100자 요약', 'AI 챗봇 사서 나비' 및 'NAL SEARCH'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 내부 직원용이지만, AI시사분석 아르고스에서는 'AI 서치', '이슈 키워드 요약' 및 'Argos Cha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포털과 입법자료포털에서는 '요약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부 직원용 업무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NAL 이음' 서비스가 있다. 방대한 자료를 AI가 신속하게 요약·번역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언어 모델을 활용한 챗봇과 의미 기반 검색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데이터 단절을 극복할 해법_NAIL

국회도서관은 훌륭한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를 갖추고 AI 기능도 도입했지만, 복잡하고 불편하다. 개별 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화면을 오가며 검색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런 식의 '멀티채널' 구조는 활용도와 효능감이 떨어진다. 이런 반응이 들려온다. "데이터는 산더미 같은데, 정작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찾기 어렵다." "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해서 검색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정보시스템 간에 AI를 활용한 데이터 융합이 불가능한, 데이터 단절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별 시스템에 따로 접속해 어렵게 자료를 찾고 나서 이를 요약·비교·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자의 몫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NAIL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 이용자가 키워드를 치고 자료를 일일이 찾아보는 수동적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AI가 직접 데이터를 읽고 제안하는 지능형 도서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단일 창구에서 모든 것이

Agentic
AI

국회도서관 지능형 플랫폼

NAIL
National Assembly AI Library

이루어지는 '원 채널'을 추구한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정확한 해답을 생성해낸다. 분산되어 있던 AI 서비스가 하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통합되어야 효율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NAIL은 단순히 챗봇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AI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플랫폼이다. 이 지능형 에이전트는 크게 세 가지를 핵심 기둥으로 움직인다. 첫째,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Agentic AI' 기술을 적용한다. 둘째,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묶어내는 '지능형 통합 플랫폼'이다. 셋째, 국가 최고의 지식 허브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팩트체크를 보장하는 '신뢰 기반 서비스'이다.

핵심 전략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자.

첫째 전략은, 질문의 의도를 꿰뚫고 해답을 제공하는 'Agentic AI'의 도입이다. AI가 스스로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도구를 쓸지 선택하며, 분석·생성을 거쳐, 최종 결과를 제공한다. 스스로 계획하고, 수정하며, 실행하는 완벽한 모두의 AI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AI를 국회도서관 생태계에 안착시킬 '지능형 통합 플랫폼'이다. 현재의 국회전자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입법자료포털, AIS사분석 아르고스 같은 훌륭한 기반 시스템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시스템들을 MCP(Model Context Protocol)라는 기술적 다리로 연결하고, 그 위에 요약, 번역, 데이터 시각화 및 이슈 분석을 담당하는 특화 에이전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AI가 스스로 추론하고 하위 작업을 분석하여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가장 최적화된 결과물을 끌어온다.

셋째 전략은, 어쩌면 도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신뢰성'이다. 우리는 철저히 검증된 입법자료, 정책자료, 학술자료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Hallucination Zero' 환경을 지향한다. 답변 생성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눈으로 원문을 검증할 수 있도록 원문 페이지 링크를 반드시 제공할 것이다. 공신력이 생명인 국회도서관의 정체성을 기술로 지켜내는 방안이다.

이러한 전략이 현장에 적용되면, 국회도서관의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이용자들은 어려운 전문용어나 복잡한 검색식 없이, 일상 언어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 AI가 질문 의도를 이해하며 재구성하고, 4억 5천만 면에 달하는 방대한 원문 DB 속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핵심 내용만 추려 적합성을 판단한 뒤 최종 답변을 제공한다. 누구나 쉽게 지식의 혜택을 누리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 도서관'이 실현되는 것이다.

마지막 도달 지점은 공유와 협력의 지식 생태계 구축

국회 내의 입법지원 서비스에도 혁신을 가져온다. 입법·정책 보고서 생성이나 이슈 분석 요청에 대하여, AI가 입법자료·정책자료와 뉴스·SNS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키워드 빈도와 여론을 분석하고 기존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추출한 뒤 보고서의 목차와 논리 구조까지 기획해 준다. 최종적으로 이슈 분석 리포트나 보고서 초안이 제공되어, 입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제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보자. 국회도서관이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국회 내부에서만 이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 지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도서관, 전문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 전국의 한국학술정보협의회 7,800여 회원기관들이 NAIL의 지능형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공유와 협력의 지식 생태계'이다.

도서관의 공간은 저작물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술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NAIL'이 되고자 한다. AI는 방대한 내용을 분석하지만, 원문 텍스트 전체를 이용자에게 직접 노출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용자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약'과 함께 반드시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해 원문에 접속하는 순간,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체계가 작동하여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 AI 기술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혀 있던 지식을 발굴해 창작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연결해 주는 상생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

※ 이 글은 2026년 4월 1일 제24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기조연설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